

보도시점 2023. 12. 22.(금) 14:30 배포 2023. 12. 22.(금) 13:30

차량용 요소수 재고 7개월 이상으로 증가 전망 전국 요소수 판매량 감소 추세

- 조달청, 오늘 총 6천톤 추가 비축분 계약
- 금주부터 중소기업체에 공공비축 물량 방출 개시

정부는 기획재정부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12.22(금) 09:30 정부 서울청사에서 「경제안보 핵심품목 전담반(TF) 총괄반 회의」를 개최하여 차량용 요소수, 흑연 및 갈륨·게르마늄 등 최근 공급망 위험(리스크) 품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.

* 참석부처: 산업·외교·환경·농식품·국토부, 조달·관세청, 국조실

[차량용 요소수]

기업들의 대체물량 확보와 조달청의 공공비축분 증가 및 공동구매 성과에 힘입어 12.21일 현재 국내 재고 및 반입 예정 물량은 6.6개월분*이다.

* 11.30(3개월) → 12.8(4.3개월) → 12.13(5.1개월) → 12.14(6.8개월) → 12.21(6.6개월)

조달청이 오늘 추가로 국내 요소수 제조사와 6천톤*(1개월분)의 공공비축을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, 국내 요소수 제조사가 조만간 제3국 대체공급선과의 계약 체결시* 전체 물량은 총 7개월분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. 조달청은 또한 12.19일부터 중소 요소수 제조업체들에게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(1,930톤)을 방출하고 있다.

* 국내 요소수 제조사에서 사우디 업체와 공공비축용으로 1천톤 공급계약을 既체결한 상태이며 추가 5천톤 물량에 대해서 신규 공급계약 협의중

요소수 판매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오피넷에 따르면 3,443개 주유소 중 3,353개(97.4%)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 중이고(12.21일 15:00 기준), 주유소 및 대형마트의 요소수 판매량은 전주 대비 감소세이다.

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된 주유소별 요소수 품질 여부 및 주입기 보유 여부 등을 검증하고 현행화하여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요소수를 구매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[기타 품목]

흑연 및 갈륨·게르마늄은 중국의 허가제 도입 이후 국내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발급되고 있고, 인산이암모늄도 충분한 국내 재고와 중국외 중동 및 동남아 등에서 업체간 공동구매 추진으로 현재까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된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	책임자	과 장	이진민 (044-215-7870)
		담당자	사무관	오서정 (sjoh10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	조성아 (scho@korea.kr)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	책임자	팀 장	이동철 (044-203-4930)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민성 (kms0735@korea.kr)
		책임자	과 장	김종주 (044-203-4910)
담당 부서	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총자과	담당자	사무관	황채은 (044-203-4913)
		책임자	과 장	문태섭 (044-201-1891)
담당 부서	환경부 교통환경과	담당자	사무관	이흥숙 (044-201-1892)
		책임자	과 장	이경빈 (044-201-692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중 (minjungkim92@korea.kr)
담당 부서	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	담당자	주무관	구세빈 (ksb8205@korea.kr)
		책임자	과 장	강여울 (02-2100-7675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	담당자	사무관	신지현 (jhshin16@korea.kr)
		책임자	과 장	이경수 (044-201-4016)
담당 부서	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	담당자	사무관	김정현 (kjh8650@korea.kr)
		책임자	과 장	박진원 (042-724-7183)
담당 부서	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정순 (kimj@korea.kr)
		책임자	과 장	김현정 (042-481-7810)
		담당자	사무관	서경복 (kbrains@korea.kr)